

건축공사 수주 '뚝'... 광주지역 건설경기 '꽝꽝'

호남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 동향
전년비 69.8% ↓... 전남 22.9% ↑
광공업 생산 감소... 수출 2.9% 늘어
인구유출 여전... 60세 이상 고용 ↑

광주지역 건설 수주가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광주와 전남 광공업 생산 감소도 지속되고 인구 유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지역의 수출과 고용 지표는

상승세를 타며 소폭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호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1분기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 수리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화학제품 생산 감소로 전년 동분기 대비 2.1% 줄었다. 광주는 1.9%, 전남 3.0%, 전북 3.8% 등 세 지역 모두 감소했다.

또 호남권의 올해 1분기 건설수주액은 2조4162억원으로 토목공사 수주는 늘었으나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48.6% 급감했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7587억원으로 토목공사 수주는 늘었으나,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69.8%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

올 1분기 호남권 수출액은 184억3000억 달러로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줄었으나 선박 등에서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9% 늘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3%, 10.3% 감소했으나 전남은 7.4% 증가했다.

고용률(63.0%)은 15~19세 등에서 하락했으나 60세 이상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

했다.

광주(1.8%p)와 전북(1.3%p)은 상승했으나 전남은 0.7%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2743만1000명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등에서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6만9000명 증가했다.

호남권 인구는 50~59세 등은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으나 20~29세 등은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8021명이 순수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50~59세(567명), 60~69세(300명), 40~49세(128명) 등은 순수입이 많았

나 취업·교육 등으로 20~29세(6429명)와 10~19세(1672명), 30~39세(560명)는 순수출 인구가 더 많았다.

소비 동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역지수는 광주 94.6으로 전문소매점 등에서 늘었으나 승용차, 연료소매점 등에서 줄어 전년 동분기보다 3.3% 감소했다.

전남은 93.2로 대형마트에서 늘었으나 전문소매점 등에서 감소해 전년 동분기 대비 5.2% 줄었다. 전북도 94.4로 대형마트에서 늘었으나 전문소매점 등에서 줄어 전년 동분기보다 5.3%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칠레 프리미엄 ‘몬테스’ 와인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와인매장 및 특설매장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진행되는 칠레 와인이너리 ‘몬테스 Day’ 행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몬테스 알파’를 탄생시킨 와인이너리인 ‘몬테스’의 와인을 행사기간 동안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몬테스 알파 시라’,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등을 3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또 소장 가치가 있는 미국 프리미엄 와인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컨티뉴엄 프리미어 나파 밸리 2012’, 슈레이더 CCS 카버네 소비뇽 2021 등 매니아층이 있는 컬트와인 역시 구매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미세먼지 대비 면역제품 선배

공기청정기·건강기능식품 ‘다양’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며 피부보호와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신세계가 건강 관련 품목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부터 스킨케어 제품 추천에 나섰다.

1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8층 ‘발뮤다’ 매장에서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더 퓨어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발뮤다 ‘더 퓨어 공기청정기’ (사진)는 미세먼지 제거와 탈취 효과를 가진 필터를 갖춰 제품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강력한 힘으로 공간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특징이다.

발뮤다는 오는 23일까지 더 퓨어 공기청정기를 정가에서 20% 할인된 50만원대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미세먼지와 황사에 직접 노출된 피부를 회복 시켜주는 스킨케어 제품도 선보인다. 본관 2층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은은한 장미향의 무알코올 토너 ‘아쿠아 디 로즈’를 추천한다. 전통 증류방식으로 만들어져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는 효과가 탁월하다. 미세먼지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 광주신세계 산



타 마리아 노벨라에서는 오는 31일까지 4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아쿠아 디 로즈(250ml) 경품 증정 프로모션을 한정수량으로 준비했다.

면역력 강화를 돕는 건강기능식품도 추천한다. 본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는 ‘정관장’ 제품인 ‘홍삼튼튼’은 6년근 홍삼에 맥문동과 도라지, 생강과 배 등을 원료로 만들어졌다. 홍삼튼튼은 면역력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선물용이나 개인 섭취용 어떤 용도로도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 김영민 식품팀장은 “최근 광주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황사와 미세먼지가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광주신세계에서 황사 대응에 필수적인 공기청정기와 스킨케어 제품 등을 한 곳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 생산 ‘캐스퍼’ 지역내 판매 1.8% 불과

누적판매 11만8000대...광주 117대
17개 시도 판매대수 ‘최하위 수준’
하반기 전기차 생산 “지역민 관심을”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생산하는 캐스퍼의 광주지역 판매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GGM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캐스퍼 1호를 시작으로 올 4월까지 약 12만대를 생산했다.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출범해 현대자동차의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출시부터 지난달까지 캐스퍼의 국내 누적 판매대수는 총 11만7985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광주지역에서 등록된 차량

은 1.8%인 2117대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시민 1000명당 1.49대 꼴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캐스퍼 4만5170대가 팔릴 동안 광주지역 등록 대수는 730대에 불과했다. 인구 1000명당 등록 대수는 0.5대로 광주시민 2000명 중 단 1명만이 캐스퍼를 구매한 셈이다. 순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인 16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1.6대를 등록한 울산시와는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는 광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지역내 판매 대수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며 “캐스퍼가 탄생한 광주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을 캐스퍼가 누빌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

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올 하반기 캐스퍼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하고, 해외 시장 수출길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캐스퍼의 수출 실적 호조와 내수 판매 증대는 고스란히 캐스퍼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광주지역 공장 추가 유치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현재 광산구 덕림동 GGM 공장 인근에 조성 중인 330만㎡(약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캐스퍼 전기차 모델은 기존 캐스퍼보다 전장이 길어지고 넉넉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범 기자

중기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개최

내달 14일까지 참가자 모집
수상자에 최대 500만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아이템 분과 참가자를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해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을 고

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인프라를 통해 성장한 우수 입수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 받고, 선발한 기업에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IR스킬·발표자

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컨설팅이 이뤄진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 참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해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이노비’,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 입증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우승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비(EnnoV)가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노비를 장착한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영찬 선수가 지난 11~1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1, 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

지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싱 스킨 ‘IONIQ 5 eN1 컵’가 사용되

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비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eN1 클래스에 참여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비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지원했다.

이노비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최권범 기자